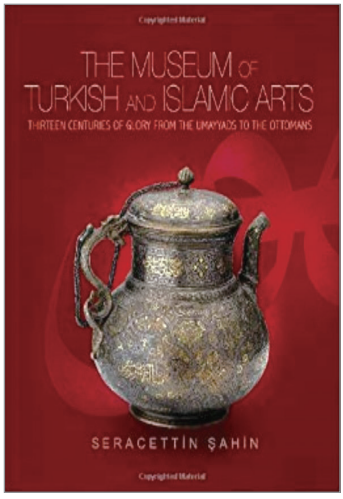

제목	The Museum of Turkish and Islamic Arts: Thirteen Centuries of Glory From the Umayyads to the Ottomans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Blue Dome Press
발행일	2009. 9. 16.
저자	Seracettin Şahin
출판도시	New Jersey
페이지수	340
ISBN 또는 ISSN	978-1935295020

내용 요약

이 책은 이스탄불에 위치한 터키 · 이슬람 예술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셀주크와 오스만 제국뿐만 아니라 다른 이슬람 문명으로부터 전해진 4만점 이상의 예술품 중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지닌 예술품들로만 선별하여 구성한 도록으로서, 이슬람 또는 터키 · 이슬람 예술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필수적인 자료이다.

이 터키 · 이슬람 예술 박물관의 유니크한 컬렉션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시대와 지역들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다. 처음 우마이야왕조(Umayyad, 661~750)를 시작으로 아바스왕조(Abbasid, 750~1258), 파티마왕조(Fatimid, 909~1171), 셀주크왕조(Seljuk, 950~1307), 장기드왕조(Zangid, 1127~1250), 아유브왕조(Ayyubid, 1171~1260, 이슬람 지배하의 북아프리카와 스페인, 맘루크왕조(Mamluk), 티무르왕조(Timurid), 오스만왕조(1299~1922), 이란의 사파비왕조(Safavid, 1501~1736)와 카자르왕조(Qajar, 1794~1925) 및 아나톨리아지역의 제민족까지 이슬람의 전 시대와 지역을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각 시대와 지역의 예술품들은 역사적 사건 및 시각자료들과 함께 연대기적으로 배치됨으로써 터키 · 이슬람 예술의 흐름에 대한 이해도를 보다 높이고 있다.